



박일 알렉산델 신부 | 반포1동성당 주임

## 깨어 있어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언제 집을 뚫고 들어올지 모르는 도둑을 막기 위해 깨어 있는 집주인처럼, 사람의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권고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예측들은 틀릴 것이고, 인간적 계산들로도 맞지 못할 것이며, 징표들도 항상 잘못 해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일반적이고 막연한 깨어 기다림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려면 아주 특별한 깨어있음이 요구됩니다.

첫째, 이 특별한 준비 ‘깨어있음’이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윤리적 장애 없이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게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골로 2,15 참조). 즉, 의로움의 열매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 곧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분별 있는 생활을 해나감을 뜻합니다(골로 1,11 참조).

둘째,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그분 앞에서 특별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베드로 사도는 원로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원로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증인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

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위에서 지배하려 하지 말고, 양 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으뜸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1베도 5,1-4)

이러한 임무를 위해 ‘충실성’과 ‘지혜로움’이 요구됩니다. ‘충실성’은, 종들은 단지 분배자일 뿐 주인이 아니기에 주인의 뜻에 맞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주인이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때에 돌아와 맡긴 일에 대해 계산을 할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심판은 죄에, 그리고 의무와 책임에 대한 자각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다른 이들보다 더 주어졌으니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실 것이며, 만일 잘못하는 경우에는 벌도 더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늘 자각하고, 이 세상에서부터 주님과 하나 되기에 합당하도록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고 선택하면서 분별 있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지혜를 받아 매일 매 순간 결단력 있게 육적인 자기 자신과 세상, 그리고 악한 영들의 유혹과 싸워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 시흥5동성당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24나길 49

중앙보훈병원(좌성당) 시흥5동성당 종암동성당



시흥5동성당(구 시흥백산성당)은 2002년 3월 시흥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99년 6월 시흥동성당 주임신부는 시흥2동의 재개발로 인해 신자 수가 증가하여 시흥2동공소를 개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흥2동공소는 1999년 12월 상가건물(2,3층)에서 축복 미사를 시작으로 태동했습니다. 이후 지금의 성전 부지를 매입하고 교구는 2002년 3월 시흥2동공소를 시흥동성당에서 분리해 시흥백산성당으로 인가했습니다. 이후 2006년 4월 본당 명칭이 시흥5동성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문화홍보국 차장